

2020. 3. 15. **사순 제3주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4:14)

제주 새미 은총의동산
교구 가톨릭사진회

제1독서 탈출 17:3-7 **제2독서** 로마 5:1-2, 5-8 **복음** 요한 4:5-42 (또는 4:5-15, 19-26, 39-40, 42)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 라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갈증...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숨 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운동을 하고 나서 갈증이 날 때 마시는 물 한 잔은 세상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도 맛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한가지 갈증을 채우면 또 다른 갈증이 밀려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오르면 오를수록 더 오르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얼마나 더 올라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길을 가시다가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은 선선한 아침 일찍 물을 길으러 오지만, 그 여인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뭔가 모를 아픔과 외로움들이 느껴집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갈증’이 나서서 ‘물 한잔’을 요청하는 듯하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증’과 ‘물 한잔’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외로움과 고통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분명 갈증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갈증이 생기고, 오히려 불안과 초조함 속에 우리를 밀어 넣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닥친 부족함을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그동안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을 해소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데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부족함 안에서도 풍족함을 느끼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김경욱 미카엘 신부
군정은상대 성당



조선(CHOSEN : 선택받은)인들²⁾ VII

2,200만 백성의 쾌활한 이야기

1940년 5월
패트릭 오코너 Patrick O'conner 신부

한국인의 문화 I

한국인들은 문화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다양한 종교를 접하며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진정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그들의 전통 음악은 서양인의 귀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한국 도시에서 한국인 바이올린 연주자의 독주회에 참석했던 일이 기억난다. 그는 독일에서 공부한 후 고향에서 귀국연주회를 열었다. 나와 코너스 Connors 신부를 제외한 청중 600명 정도가 전부 한국인들이었다.

그 연주회장은 애향심 넘치는 시민이 십시일반 모아 시에 기증한 것이었다. 젊은 연주자는 격식을 차린 야회복을 입고 나타났고 훌륭한 연주를 보여주었다. 반주자는 한복을 입은 한국 여성이었는데 연주자만큼 유능해 보였다. 음악은 주로 외국곡과 고전음악이었다. 그곳에 있는 청중들은 미국과 유럽 사람들도 몸을 배배 꼬면서 '나한테는 너무 수준 높은 곡이야' 하고 중얼거릴 법한 곡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 재능있는 바이올린 연주자는 앵콜곡으로 대중적인 곡을 연주하였다. 연극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6월의 어느 밤, 젊은 한국 연주자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매력을 풍기며, 팽팽하게 진동하는 현들 위로 활을 휘젓고, 한국의 관객들은 애원하며 약동하는 듯 울려 퍼지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Ave Maria를 듣고 있었다.

서양에서 한국에 전래된 모든 것들이 슈베르트의 음악처럼 고상한 것은 아니다. 나는 어느 날 저녁 한국 읍내의 영화관에 갔다. 어떤 종류의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며 한국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했다. 관객들에게 두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할리우드 작품이었고, 두 번째도 아마 할리우드 작품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듣기로는 두 번째 것이 아주 괜찮은 작품이었다고 한다. 나는 두 번째 영화를 보지 않았다. 첫 번째 영화도 일부만 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영화는 낡은 무성 희극영화였는데, 영화계에서 주가가 높은 희극인들이 출연했음에도 수치스러운 작품이었다. 비윤리적인 작품은 아니었지만, 저속하고 조잡한 작품이었다. 그것은 영화계에서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희극배우들이 주역을 맡은 구식의 무성 희극영화였는데, 망신스러웠다.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저속하고 시시하며 조잡했다. 아마도 일부 한국인은 그 영화를 보고 상스러운 정신병원에서나 찍을 법한 영화라 결론지었을 것이다. 한국인 어느 누구도 그 영화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그 영화가 음란물로 가득 찬 정신병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항의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나, 큰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책임은 한국에 있지 않다. 이런 영화를 해외로 판매하는 사람들과 조직이 비난받을 일이다. 그런 작품들은 미국인의 삶이나 가치, 그리고 어떤 미국인의 미덕도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적인 것들을 폄하하게 만들 뿐이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1) 「The Far East」는 대한민국에 왔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사목활동의 성과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글로 썼고, 이를 실은 잡지다.

2) 「The CHOSEN People」(1940년 5월), p.4-7.

수치심

허 찬 베드로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김 씨는 어렸을 적에 자다가 이불에 오줌 샀다고 어머니로부터 동생들이 있는 앞에서 혼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남이라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기에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자라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생 시절 선생님이 국어책을 읽어보라고 했을 때 한 구절을 이상하게 읽자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전부 웃었습니다. 이를 크게 부끄러워했던 그는 그때부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잦아지자 친구들과도 거리가 멀어져 외톨이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부모에게 이야기해도 격려도 못 받고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자 점점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발표를 하려고 하면 자신이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것만 같아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점점 사람들을 피하면서 수업만 겨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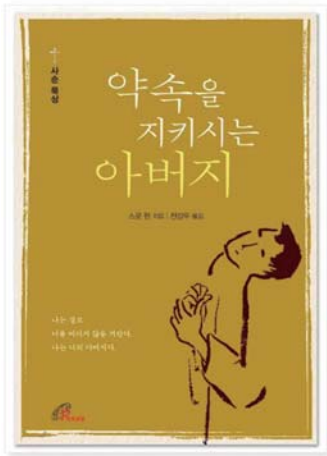
인간이 자라면서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즉, 주 양육자가 보여주는 무시나 거부, 사랑의 철회는 아이로 하여금 긍정적인 감정을 중단시켜 내면에 해로운 수치심이 자라도록 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 것처럼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서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한 수치심, 자신에 대한 경멸로 인해 부적절감과 공허감을 가지며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는 해로운 수치심도 여러 관계성을 맺어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안에 내면화된 수치심은 주로 실패 경험과 연결되어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단절의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수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해 줍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건강한 수치심은 그러한 실수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없어져야 할 것만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며, 그 실수가 자신을 해치는 것도 아니기에 실수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잘났든, 못났든 나 자신을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부족함을 하느님께 기도로 온전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하느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 주셨구나.”(창세 30, 23)

시간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지키지 못할 약속을 수없이 남발하면서 살아 왔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시간은 다시 사순시기를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천천히 내면의 나를 바라봅니다. 그다지 맘에 없었으면서도 던진 약속, 엉뚱한 헛말로 남긴 상처들까지 많기도 합니다. 인간 삶 속에 촘촘히 박힌 사랑의 약속을 남겨준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까지 약속에 충실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묵시록까지 인간 역사 속에 하느님의 뜻을 알은 신앙으로는 알아듣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이럴 땐 깊은 혜안으로 깨닫고 발견한 영성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큰 도움이겠다 싶습니다. 스콧 한(Scott Hahn)의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계약과 가족’

을 통해 인간 삶을 이끌어 온 하느님의 역사이자 우리의 역사를 ‘약속’이라는 한마디로 집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실과 불충실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인간의 수많은 걸음의 시간 속에 탐욕으로 점철된 속성과 하느님 신성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식별할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이 때문에 그 의미의 큰 맥을 짚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큰 계획으로 시작된 ‘창조 이야기’, ‘노아와 아브라함의 순종’, ‘탈출’, ‘광야에 선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배로’, ‘다 이루어졌다’, ‘여기 신부가 옵니다’ 순서로 전개되는 묵상은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 마음에 새길 수 있어 사순시기를 보내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인용과 묵상 인도 글, 실천적인 질문, 그리고 짧은 기도로 구성돼 책 내용을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 내용은 부활 대축일과 하느님의 자비 주일에 이르는 부활 8부 축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만큼 크고 작은 인생길에서 마주한 약속에 함께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자 스콧 한, 그는 장로교회 목사이자 교수로 활동하다 1986년 부활절에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체험을 자신 안에 체현시킨 것입니다. 어둠과 갈등의 시기를 거친 후에 만난 빛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고 집약해 놓은 신학적이면서 영성적인 그의 많은 저서 중에 사순절 묵상서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는 하느님 약속의 체험임을 또 한 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당신은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새 계약은 정치적 또는 국가적 회복을 넘어서는 것으로, 온 세상을 위한 보편적인 영적 회복입니다.”

이렇듯 사순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상실과 혼동에서 참된 약속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각 개인의 걸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3월 16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3월 16-20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총대리 주교님 동정

3월 16-20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피아골피정집

주방 조리원 채용공고

대상 : 세례 3년 이상, 급식 근무 경력자
근무여건 : 숙식제공, 4대 보험
문의 : 061) 782-5004

성소국

예비신학생 지원반 월모임

일시 : 3.29(주일) 10:00
대상 : 고3, 청년 사제성소자
장소 : 평생교육원
문의 : 062) 380-2280~1
※ 3.22(주일) 예비신학생 월모임 취소

모두 함께합시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com FM 99.9MHz FM 99.5MHz

f 페이스북 kjpbcc99.9mhz t 트위터 kjpbcc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월-금 (재방송) 16:50-17:00]

3.16(월)-18(수) 김연준 신부(피아골피정집) / 3.19(목)-21(토) 박병철 신부(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김권일신부 인문학 특강 연기 안내 광주가톨릭평화방송에서 3.12(목), 3.19(목) 두 차례 마련할 예정이었던 '김권일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 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구의 모든 미사가 중단됨에 따라오는 3.22(주일)까지 '매일미사'를 10:30분에 방송합니다. 방송국 SNS(페이스북, 유튜브)에서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을 검색하면 해당시간에 '매일미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3.15(사순 제3주일) 옥현진 총대리주교 / 3.16(사순 제3주간 월요일) 성소국장 박기석 신부
- 3.17(사순 제3주간 화요일) 주교좌 임동 성당 이정주 주임신부
- 3.18(사순 제3주간 수요일) 공동주교좌 북동 성당 김중걸 주임신부
- 3.19(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치평동 본당 천정기 주임신부
- 3.20(사순 제3주간 금요일) 치평동 본당 김경주 보좌신부
- 3.21(사순 제3주간 토요일) 풍암우리 본당 이영선 주임신부 / 3.22(사순 제4주일) 사무처장 이종희 신부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칼리 현 책터하기사랑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8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구지침에 따라 1학기 개강을 3.23(월)부터 연기하여 진행합니다.

2020년 1학기 수강생 모집

교리신학원 한국교회사/신론/성서입문/오경/교리교사양성학교 신학·영성 생태영성학교/수도자아카데미 성경 화요신약성경 철학 현대철학사/철학교전입기 어학 스페인어/주부영어교실 미술 교회미술 자경 장례지도사/가톨릭상담심리사/인지활동지도사/웃음지도사/미술상담심리사/우리춤체조/커피로마스터 무용 실버생기무용/전통무/우리춤(작품반·창작반) 교회음악원 성음악사/음악기초이론/그레고리오성가1/평가합창발성법1/지휘/오르간(전문)/화성학1/교회음악원합창반/그레고리오성가합창반 음악 가야금/민요/판소리교법/색소폰/클라리넷/바이올린/플루트/발성명가곡교실/성악/통기타/클래식기타/피아노/오르간(일반·상기반주)/대금/오카리나/난타 교양 음악심리·한박자서금/가톨릭공예(양초·조각초·매듭목주)/사진교실/시낭송을통한감성스피치/해설이있는클래식음악감상/생악초와원원코디네이터/영화로성경읽기

2020년 1학기 수도자아카데미 수강 안내 (개강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일시] 1강-3.24(화) 10:00-12:30 [주제] 르네상스시대의 화가들과 삶
[강사] 옥현진 주교 [대상] 수도자, 축성 봉헌생활자, 교구사제, 평신도 [수강료] 1만3천 원
'장례지도사' 수강생 모집(국가자격 상장례지도사교육 표준교육과정반)
[기간] 4.4(토)-11.22(주일)/1년/토, 주일 [시간] 09:00-18:00(이론 250시간, 실습 50시간)
[수강료] 100만 원(식사비 별도)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빵 다섯 물고기 둘'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우리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사목, 병원사목,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빵 다섯 물고기 둘' 회보 발송
- 후원금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 첫걸음' 안내

첫돌, 결혼, 생일, 취업, 축일, 승진, 개업, 퇴직, 화갑 등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난치병 환자와 미혼모자에게 나눠주세요. 소중한 나눔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062) 510-289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교구지침

〈교구 대응 방안〉

- 3.22(주일)까지 미사와 다수가 참여하는 모든 모임(사목회의, 레지오, 제2체 회합 등) 중단
- 대승으로서 방송미사 참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전례), 선행 등으로 주일 의무 지키기
- 직접 영성체를 하지 못하지만 대승특별히 방송미사)중에 "내 안에 주님께서 머무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마음"으로 신령성체하기를 권장

〈개인예방수칙 생활 방안〉

-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질환자 접촉여부 알리기
- 감염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극도의 불안감으로 모두가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 내시는 하느님을 믿으며, 기도 안에서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고 지혜롭고 강건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